

술 과 健康

金 益 明

前. 성가병원외과과장
일간스포츠킴건강코너집필
現. 김익명외과의원 원장(의박)

目 次

- I. 서 언
- II. 알콜과 심장혈관질환
- III. 알콜과 위장관 질환
- IV. 알콜과 간질환
- V. 여성과 술
- VI. 알콜중독

I. 서 언

말의 순서에 따라, 즉 술과 건강이라면 술을 어떻게 잘마시면, 또 어떻게 덜마시면 건강을 유지할수 있느냐 하는 뜻이 될 것이고 건강과 술 하면 건강하려면 어떻게 술을 마셔야 할 것이냐, 즉 건강을 위해서 술의 도움을 받고자하는 내용이 될것이다. 순서가 어떻게든

술과 人間의 관계는 人間이 있고부터 술이 있었을 것으로 확신할 정도로 불가분의, 필수적인것으로 볼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人間の 몸속에 충분한 량의 술해독 효소인 알콜 데하이드로 케네이즈 및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 케네이즈의 두 효소가 간및 신체전반에 충분히 있다는 사실로도 증명이 된다고 볼 수 있다.

人間뿐만이 아니고 여러 포유동물에서도 위의 두 알콜 소화효소가 충분히 있다는 사실로 보아 술은 人間만의것은 아닌 것으로도 생각된다. 우리 인간은 인간의 역사시작부터 과일이나 곡물의 발효(즉 고여서 썩은상태)액에서 알콜을 취했을 것이고, 또한 다른 야생 포유류도 같은 방법으로 알콜을 취했을 것이다.

인간이 자연적인 알콜에서 증류시키는 방법을 고안, 발전시킨것은 서력 약800年경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좀더 순수하고 고농도의 술을 만들어 마셔온 것이고 여기에 여러가지의 향료, 아미노산, 광물질 및 비타민 등의 첨가로 색다른 술을 만들어 마신것이 오늘날의 갖가지 술이라고 볼 수 있다.

술은 결국은 당질의 발효에서 생긴 산물로 그 당질의 원천에 따라 포도 및 과일에서 와인(Wine), 사탕수수에서 럼주(Rum), 곡식및 귀리에서 맥주, 곡식및 옥수수에서 위스키(Wiskey), 감자나 곡식에서 보드카(Vodka) 등의 술이 빚어질수 있는데 우리 나라 술들도 역시

이 범주속의 변형들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에 따라 그들의 고유한 문화가 있듯이 술 또한 고유하게 보존해 오고 있다.

영국의 위스키, 독일의 맥주, 프랑스의 포도주, 중국의高粱주, 일본의 정종, 소련의 보드카, 우리나라의 소주, 막걸리 등등이겠다. 술은 그저 마셔서 취하기만 해서는 안 되며 그 민족 고유의 맛과 향취 및 생명력이 깃들어 있어야 할 것이며, 좋은 술을 빚어 먹은 민족일수록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음을 볼때 그 민족의 문화란 곧 술의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 민족은 비교적 술을 즐겼던 민족으로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어우러져 지내온 민족이다. 祭天민족이기에 항상 하늘에 감사하고 그때마다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으로 삶의 기쁨과 하늘의 고마움을 表하고 착하고 순박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여러사람이 모여 마시게 되면 으레 취기가 오르면 노래와 춤이 있게 되고 떠들썩했을 것이다.

지금도 봄철이면 방방곡곡 무리져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광경을 보면 옛풍속이 그 대로 내려온 것일게다.

이렇게 무리져 먹는술이고 보면 그 맛이나 질에는 크게 신경쓸 여유도 없을 테고, 먹고 취해서 빨리 어울려 놀면 될 것이니 술의 발전엔 펍 무뎠을 것이다. 하지만 요즈음 우리나라의 주류산업도 급속도로 발전하여 양질의 술을 만들고 있는것으로 생각된다.

우리가 즐겨마시는 소주만 보더라도 고무마, 쌀보리를 발효시켜 생산한 곡물 주정을 청결한 물로 희석하여 만든 담백한 맛을 띤 술로서 외국의 술과 견주어 볼때 질적인 면에서는 전혀 손색이 없다고 본다.

다만 포장을 좀더 개선하여 세계의 술로서, 한국고유의 소주로서 '86년, '88년 양대 세계大會의 외국손님들을 황홀하게 만들고 그들의 귀국길에 몇병씩 주렁주렁 들고 공항을 떠나

갔으면 얼마나 통쾌할까. 영국의 스카치 위스키처럼 세계적인 명주에 끼일 날을 기대해야겠다.

얼마전 신문에 우리나라국민의 술소비가 세계제일이라고 한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국민도 국가도 아연 실색한 적이 있지만, 아마 우리나라처럼 먹고 마시는 음식점, 술집많은 나라도 드물것이다. 잔은 넘쳐야 맛있고 넘은 품어야 맛있어라는데, 한잔 채워 마시고 돌리다 보면 이미 만취되어 이젠 술이 술을 먹고, 결국엔 술이 사람을 먹게 되는것이 우리나라 주당들의 술버릇인데

三杯通大道

一斗合自然

통큰 옛 주당들의 주선의 경지를 헤아려 볼만하다.

이제 술을 어떻게 많이 마시면서 건강을 유지할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라, 우선 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뇌와 위장과 간, 심장 및 순환기계등에 미치며 음주의 종류, 기간, 개인차등이 문제된다. 같은 술을 같은 양으로 마셔도 그 반응이 나타나는 증세및 그 강도는 개인에 따라 다같이 틀리는 것이다.

알콜은 一部 胃에서 흡수되고 소장上部에서 완전 흡수된다. 흡수된 알콜은 말초혈관을 확장시켜 얼굴이 붉어지고 수족이 따듯해지며 점차 정신이 흥분되어 언어, 동작이 활발해지고 기분이 좋아져서 큰소리로 웃기를 잘하고 말이 많아진다. 일반적으로 소심하고 치밀한 성격의 사람에게 더욱 심하며 주의집중력이나 판단력이 둔해지고 自制능력과 의지력이 약해진다.

이러한 작용은 중추신경의 흥분에 의한것이 아니고 마비때문에 일어나는것으로 대개 음주 초기에는 흥분상태를 보이는데 이것은 억제조절기능의 마비때문에 오는것이다.

여기서 더 마시면 自制力이 완전히 없어지고 쾌감을 느끼는 듯 깊은 감상에 젖고, 無意味한 웃음을 크게 웃기도 하고 화를 낼 일도 아닌데

심하게 분노하고, 他人의 감정에 전연 無關心 해지고 책임감도 없어진다.

이때 사람에 따라서는 난폭해져서 범죄를 저 지를 수 있게되며 여기서 더 마시면 걸을걸이 가 비틀거리고 의식이 흐려지며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 더 마시면 근육의 반사운동이 마 비되고, 人事不省, 호흡 마비등으로 죽게된다.

알콜의 혈중농도와 마비상태와의 관계는 다 음과 같다.

혈중 농도	마 비 증 상
55mg%	쾌감을 느끼고 큰소리로 웃거 나 화를낸다.
100~200mg%	보행이 비틀거리고 의식이 흐려진다.
250~500mg%	인사불성, 호흡마비, 사망

그러면 각기관별 술에 대한 반응이나 이로 인해서 생길수 있는 병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알콜과 심장 혈관질환

순환기계의 질환예방이나 치료에는 폭음을 삼가야한다.

대개 적당한 量의 알콜을 먹으면 (혈중농도 200mg%이하) 가슴이 뛰고 피부혈관이 확장되고 관상동맥으로의 혈류는 약간 증가되고 혈 압이 상승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말초혈관이 늘 어나 다소 내려간다. 뇌로 가는 혈류는 별 변 화가 없다.

만성 알콜 중독환자에 과량의 술을 먹이면 부정맥, 율혈성不全, 협심증등이 발생하여 急 死하는 경우도 있으며 적은양의 출혈에도 쇼 크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알콜이 血圧에 미치는 영향은 적당량의 음 주는 고혈압발생의 원인이 아니지만 多量의 強 한 술의 음주는 고혈압의 원인이되며 또 음주

時의 흥분이나 행동에 따라서 고혈압의 유인도 되고 합병증 발생에도 문제가 있다.

또 음주로 얼굴이 창백해지는 사람에서 혈압 이 상승된다는 학자도 있어 주의할 일이다. 만 성알콜중독에서 고혈압 및 腦出血환자가 많으 며 과량의 음주는 뇌혈류를 증가시키고, 음 주로 인한 흥분이 腦出血을 더욱 잘 일으킬 것 은 분명하다.

以上에서와 같이 적당량의 음주는 건강인에 서는 別문제가 없고 식요항진작용 진정작용등 알콜의 좋은점도 있다.

그러나 과량 혹은 장기간, 강한술을 섭취하 면 심장에 여러가지의 장애가 발생하고 급사 등 예기치 못한 결과가 초래되며, 음주로 인한 흥분상태, 영양장애, 각종 비타민결핍, 주류中 에 함유돼 있는 물질들도 음주와 함께 심각한 문제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III. 알콜과 위장관 질환

위장관은 식도에서 대장까지의 길이가 약 6 ~7m에 이르며 그 형태와 기능은 단순치 않으며 음주에 의한 영향도 소화관의 각부위에 따 라서 다르다.

술은 단순한 확산에 의해서 흡수되며 수분내 에 血行中에 이행되는데 혈중농도는 섭취한 알 콜의 농도에 비례한다.

술은 위보다 소장에서 더욱 빨리 흡수되며 위수술환자에서 더욱 빨리 술이 취하는것도 소장에서 더욱 빨리 흡수되는 때문이다.

위산의 분비는 알콜농도 8%以上인 경우엔 산분비가 저하되며 6%以上인 경우엔 위에서 음식물이 늦게 배출된다.

또 장에서 흡수된 알콜은 다시 血中을 통하 서 장관內로 다시 배출되어 결국은 장관내에 는 더 오랜시간 알콜의 영향을 받게되는 것이 다.

술이 식욕을 증진시킨다고 (반주)하는 얘기

는 학문적으로 특별히 규명된것은 아니고 오히려 정서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야 할것 같다.

1. 알콜이 식도및 위에 미치는 영향

음주했다해서 위장관장해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증세와 병변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

장기간에 걸친 음주나 위궤양의 발생, 치료에 미치는 영향으로 만성위궤양이 앞으로 전회되는지의 여부는 아직도 분명치 않으니 너무 걱정 안해도 되지 않을까?

가. 식도

술의 直接的인 자극이 식도염및 식도암을 만든다고 보는것이 현재의 추세이다.

나. 胃

㉑ 급성위염

술 때문에 급성위염이 생긴다는 것도 확인된 사실이다. 음주後에 별 자각증상이 없어도 위내시경 검사를 해보면 급성위염의 소견을 많은 예에서 볼수 있다. 대개는 상복부 통증 및 압통, 구역질, 구토등의 증세를 보이며 위 내시경상 위점막이 부어있고, 充血 및 심하면 괴사, 출혈, 궤양 등을 볼수있다.

대개의 환자는 1~3週간의 치료및 요양으로 정상회복되지만 음주를 계속하면 쉽게 낫지 않는것이 보통이다.

㉒ 만성위염

급성위염과 음주와의 관계는 분명하지만 만성위염과 음주와의 관계는 분명치 않은점이 많다.

그러나 급성위염이 음주에 의해서 반복된다든가 음주에 다른 어떤 요인으로 위염이 생긴다면 분명히 음주도 만성위염의 큰 원인이 될 수 있겠다.

㉓ 위궤양

음주가 만성위궤양의 원인이라고는 분명히 말하기 어렵지만 급성위궤양의 분명한 원인이

되는것은 사실이다.

㉔ 위암

사실 음주가에 위암발생이 높다는 보고는 없다. 위와 식도가 만나는 위분문부암은 확실히 음주가에 많다.

이것은 독한 술이 위액에 희석되기前에 이 부위를 직접자극, 접촉하여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2. 알콜이 소장 에 미치는 영향

음주가 직접 소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만 다소의 영향이 있을것으로 생각되며 담즙분비저하, 취장액분비저하, 장액분비및 운동의 변화로 설사등을 일으킬 수 있다.

3. 알콜이 대장에 미치는 영향

술은 거의 위나 소장에서 흡수되어 역시 대장에는 직접 영향이 없으나 흡수된 알콜의 장관内 배출로 인한 영향은 아직 불분명하다.

IV. 알콜과 간질환

만성 음주자에 간질환 특히 脂肪肝이나 肝硬變이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는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어 애주가들의 제일큰 고민이며 공포의 대상이다.

아마도 술 좋아하는 사람이 의사 찾아 보길 꺼리는 원인도 바로 간에 대한 공포 및 간에 대한 의사의 공갈일것이다. 술 많이하던 누구가 엇그제 간경변으로 피를 댄하고 죽었다느니 누구는 흑달이 들고 배가 부르니 곧 죽을것이라느니 하는것이 모두 간에 대한 공포에서, 또 술잔계나 마신사람은 자업자득식으로 받아드리는 것이 바로 술에 의한 간의 병일것이다.

구미 각국에서는 간경변의 50~60%가 술에 기인한다고 하지만 종족에 따라서 술과 간경변 발생빈도 차이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의 간경변 원인은 바이러스성

간염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이며 술로 인한 간경변은 약 7%에 불과하다고 하니 술꾼들은 좀 안심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도 최근 생활양식의 서구화라든가 生活의 안정으로 술로 인한 간질환이 점차 늘고 있는 것은 주의할 점이다.

술로 인한 肝장해는 급성인 것과 만성인 것으로 나누는데, 술꾼의 간 장해는 술 자체보다도 음주에 동반되는 영양부족이 주 원인이다. 혹자는 술 그 자체이다. 체질적 소인 및 바이러스로 인한 간염등이 문제된다 등으로 주장이 분분하지만, 이중 어느 하나라고 분명히 말할 단계는 아니며 역시 얼마동안, 얼마만큼의, 얼마나 강한 술을 어떻게 먹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보통 건강한 사람의 肝은 알콜소화능력이 하루 120gm인데 장기간 술을 마신 사람은 하루 80gm이 안전권이고, 160gm은 위험권, 이 이상은 어느정도 간장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個人的으로 差는 있겠지만 하루 평균 160gm以上을 15年 계속 마신 경우엔 약 80%以上이 알콜성 간염이나 간경변을 갖게 된다.

(註: 2홉드리 25% 소주한병은 알콜 약 75gm)이며 맥주로는 큰병(680cc, 5%)이 약 34gm이다.)

1. 급성알콜성 간염

이것은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폭음하여서 일어나는 급성간염이 아니고, 만성적인 술꾼들에게 폭음후 급성으로 간장해를 일으킨 경우를 말하며 경과가 대단히 급하고 위험하다.

만성 술꾼에서 갑자기 황달이 온다든가 소변색이 간장빛처럼 검붉고, 배가 아프고 배가 불러진다는가 하면 적신호를 생각해야겠다.

2. 만성 알콜성 간장해

오랜기간 술로 하루를 보낸다. 싶은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지방간 및 간경화를 말함인데

모든 증세는 급성 알콜성 간염때보다 약하게 나타나며 그정도도 가볍지만 꼭 술을 끊고 꾸준히 치료해야한다.

다행히도 大部分의 알콜성간장해 환자는 음주를 계속하는데도 그 진행이 비교적 늦고 그 예후도 그리 不良한편이 아니다. 입원해서 치료받으면 대개 많이 좋아지며 간기능검사도 정상치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열심히 술끊고 치료해 볼 일이다.

V. 여성과 술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약주하셨다는 얘기는 제법듣지만 젊은 아낙네가 술마셨다는 얘기는 못들어봤을 것이다. 요즘 남녀평등, 여권 신장 및 직장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점차적으로 여성의 술도 문제가 될 것이다. 임신한 여성이 과음하면 애기의 出産後 사망율이 현저히 높고 심장 및 四肢 등의 기형아, 지능이 부족한 아이등을 낳게되어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케 된다.

이것은 술의 直接작용과 엄마의 영양실조등이 원인될 수 있으며 알콜중독 여성의 임신은 중절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VI. 알콜中毒

습관성으로 음주하면 자신의 신체는 물론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 社會生活이나 人間關係에 까지 해를 미치게되고 또 술을 먹어야만 제대로의 기능을 하게된다.

습관성 음주는 불우한 사람이나 범법자에게 많으며 여자에서 남자의 1/5정도 있으며 문화적 배경, 민족적배경등에따라 발생빈도의 차이가 있다. 아일랜드系 美國人에 많고 정통유태인이나 아세아 사람들 중에는 그 비율이 낮다.

많은 범죄가 음주와 관련돼 있는것은 여러 애주가에게는 섭섭한 일이다.

취중운전의 경우 알콜의 혈중농도가 0.08% (80mg/10ml) 정도이면 운전판단이나 동작에 영향을 심하게 주며, 0.05%~0.1%면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많아져서 정상인보다 약10배 가까이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아진다.

또 병원에 入院한 가족내의 사고환자의 20% 정도가 음주와 관련돼 있으니 밖에서 술마시고 집에 들어가 안전해 져야겠다.

습관성 음주자 中에는 어떤 곤혹스런 일이 있어서 이 일을 해결할 길을 찾다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 사람과 아예 습관성음주 以前에 이미 성격이나 人格에 장애를 가진사람으로 불만스런 人間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사람은 어떤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 시작한 술이 아니고 대개 분명치 않은 이유로 과음을 시작해서 몸이 망가질때 까지 마시게 된다.

대개의 습관성 음주자는 융통성이 없고 냉담. 全能感, 不死身感, 他人에 의존하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증오감 性的 不能이나 不滿, 우울증등을 갖고있다.

항상 지나친 요구를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고 人間關係도 나빠서 어떤 요구가 좌절되면 마음속에 큰 증오감을 갖게되고 이 증오감을 자기 안으로 쉐겨서 自己破壞的인 方法으로 처리하다가 술에 집착하게 된다.

지나치게 애지중지하고 過保護的이고 어린이가 보낼때마다 젖을 빨려주는 어머니한테서 자란 아이는 성장하면서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能力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挫折에 직면하면 충동적으로 분노를 일으켜 반응하고, 그後 분노에 대한 죄책감으로 自虐的이 되어 과음하게 되고 결국은 無責任한 행동을 하게된다.

또한 끊임없는 不安感和 여러가지 責任을 피하고 싶은 욕구와 열등감등이 습관성음주의 原因이 될수있으며 어렸을때의 신체적인 징벌이나 위협등이 原因이될 수 있겠다.

不安에서 해방되려고 술을 마셔 봤을 경우 다른 어떤 方法보다도 第一 효과적이고 신속

하여 계속 마시는 경우도 있겠다.

퇴근녘 속이 출출할때 한잔 생각나는 것은 술꾼이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와같이 영양결핍이나 비타민부족 특히 비타민B의 결핍이 습관성 음주의 원인이라고도 하며 유전적인 因子도 무시못한다고 한다. 위와 같은 원인으로 습관성 음주의 치료는 간단치 않으며 個人的의 요구와 잠재적인 능력에 따라 고쳐가야하며, 적어도 습관성 음주는 만성적인 문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술만 끊으면 모든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에선 오산이고, 家庭内 적응, 직장 및 직업에의 적응, 社會적응, 人間關係에서의 만족감을 되찾을수 있도록 해가면서 차차로 음주량 및 음주 회수를 줄여가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술을 못마시게 강제로 가뉘 놓기는 어렵고 술이 몸에 받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술을 끊게 하는 方法도 있다. Emetine 이나 Apomorphine 같은 약을 쓰고 술을 먹으면 약의 작용으로 구토를 일으키게 되고 이를 반복하면 술에 대한 혐오감으로 술을 피하게된다. 또 Antabuse 라는 약물을 쓰면 술에 異狀반응을 일으켜 기침, 호흡곤란, 구토 및 여러가지 불쾌한 신체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어쩔수 없는 경우에 쓰는 方法이라고 생각되며 복잡해지는 현대生活속에서 좋은 술과 좋은 분위기,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 적당한 마신다면 그 以上 행복한 生活이 어디 있겠는가.

술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면 달도 별도 없는 하늘과 같을것이다.

한잔하고 히죽히죽 웃는것이 뭐 그리 나쁘겠는가.

道喪向千載 - 大道를 잃은지 千年이라
人人惜其情 - 사람들은 맑은情주기 아끼네
有酒不肯飲 - 술조차 마시기 꺼리며
但願世間名 - 오직 세속적 이익만 쫓노라
所以貴我身 - 내한몸 귀하게 하는 부귀영화도
豈不在一生 - 고작내한平生 붙어다닐 뿐이며

有元産業(株)

**- 안찬달, 문창환이사
상무로 승진 -**

有元産業(株) (代表理事 崔 民錫)은 지난 '85. 3. 21 안찬달 관리이사를 관리상무로, 문창환 생산이사를 생산상무로 승진발령했다.



▲ 安贊達 常務理事
〈略 歷〉

- 37. 10 경남선령출생
- 64. 2 영남대학교 영문과졸
- 64. 11 유원산업(주) 입사
- 77. 1 동사 업무부장
- 83. 3 동사 관리이사
- 85. 3 동사 관리상무(현)



▲ 文 昌桓 常務理事
〈略 歷〉

- 39. 12 경남 마산출생
- 59. 2 마산상업고등학교졸
- 64. 2 유원산업(주) 입사
- 78. 12 동사 생산부장
- 83. 3 동사 생산이사
- 85. 3 동사 생산상무(현)

(株) 眞 露, 진로위스키(주)

**- 함성규, 김상희, 이관호부장
이사대우로 승진 -**

(株) 眞露(代表理事 張 澤龍)은 지난 '85. 4. 1. 함성규 부장을 그룹기획조정실 경영기획팀 이사 대우로, 이 관호 부장을 연구소 이사대우로, 김상희 부장을 판매관리부 이사대우로 승진 발령했다.

이날 이사대우로 승진한 새 얼굴과 승진 및 전보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함성규 이사대우

〈略 歷〉

- 41년 충북출생
- 59년 대전고등학교졸
- 6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졸
- 69년 서광실업 무역부 입사
- 71년 고려모직(주) 과장
- 81년 (주)진로 무역부 부장
- 84년 기획조정실 5부부장
- 85년 그룹기획 조정실 경영기획팀 이사대우(현)



▲ 이 관호 이사대우

〈略 歷〉

- 40년 평남출생
- 59년 중동고등학교졸
- 65년 서울대학교문리대학학과졸
- 65년 진로입사
- 79년 기획조정실 연구소부장
- 85년 연구소 이사대우(현)



▲ 김 상희 이사대우

〈略 歷〉

- 45년 경남출생
- 63년 부산고등학교졸
- 64년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중퇴
- 70년 진로 입사
- 77년 서울공장 관리부 노무과장
- 79년 기획조정실 1부차장
- 81년 기획조정실 5부부장
- 85년 판매관리부 이사대우(현)

◆ 승진

관호안은 전직

▲ 김기일(차장) 자재부 부장 ▲ 김경일(과장) 그룹기획조정실 조직관리팀 차장 ▲ 차판수(과장) 판매관리부 차장 ▲ 백용환(과장) 서울사무소 출고관리부 차장 ▲ 이정팔(과장) 연구소 수석연구원보 ▲ 조현철(과장) 부천공장 생산부

차장 ▲ 이정언(대리)총무부 총무과장 ▲ 이학주(대리) 서울사무소 영업관리부 관리 1 과 과장 ▲ 유철희(대리) 서울사무소 제 2 영업부 과장 ▲ 김원일(대리) 원주사무소 영업 1 과 과장 ▲ 최동관(대리) 부천공장 생산관리과 과장 ▲ 최인기(대리) 이천공장 관리부 노무과 과장 ▲ 표해승(대리) 이천공장 관리부 출고과 과장 ▲ 나성우(대리) 이천공장 생산부 시험과 과장 ▲ 송범문(대리) 서울사무소 제 1 영업부 영업 4 과 과장 ▲ 이영철(대리) 와인사업부 관리과 과장
- 이상(주) 진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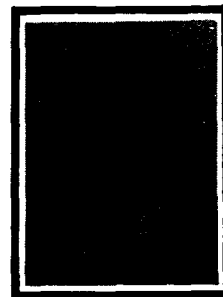
▲ 엄선흠(과장) 이천공장 원액제조부 차장 ▲ 정건(대리) 이천공장 원액제조부 원액제조과 과장 ▲ 신오현(주임) 대구출장소 대리
- 이상 진로 위스키 -

◆ 전보

관호안은 전직

▲ 이세현 부장(건설본부) 그룹기획조정실 ▲ 박무용 부장(총무부) 그룹기획조정실 조직관리팀 ▲ 전은행 부장(서울사무소 출고관리부) 그룹기획조정실 조직관리팀 ▲ 안덕준 부장(자재부) 대전사무소 ▲ 문창수 차장(총무부 인사과) 총무부 ▲ 강성진 과장(기획조정실 1부) 판매관리부 판매관리과 ▲ 유대영 과장(와인사업부 관리과) 와인사업부 재배과 ▲ 윤근수 과장(이천공장 관리부 자재관리과) 자재부 관리과 ▲ 조용후 과장(이천공장 생산부 생산과) 이천공장 생산부 환경관리과

— 張學燁 會長別世 —



故·張學燁 진로그룹회장

진로그룹 창업주 장 학업(張學燁, 82, 사진) 회장이 4월 17일 오후 7시 15분 종로구 부암동 292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1903년 5월 23일 平南 龍岡에서 태어난 장회장은 1923년 鎭南浦 公立商工學校 商科를 졸업, 황해도 谷山공립보통학교 교원을 역임하였으며, 1924년 龍岡郡 眞池洞에서 眞泉양조 상회를 창립실업계에 투신했다. 6.25당시 월남, 빈손으로 재기 東和양조, 龜浦 양조등을 경영 “金蓮” “落東江” 등의 소주를 생산했으며, 휴전 협정이 체결됨에 서울로 환도 '54년 西光酒造(株)를 설립했다. '66년에는 曉星 유리공업(주)을 설립했고, '71년에는 은탑산업 훈장을 수상했다. 교육에 남다른 열성을 가진 장회장은 '72년 학교법인 友泉學園을 설립 理事長에 취임. '74년 宇信中高가 개교를 보아 교육 발전에도 공을 남겼다. '72년 부산에 道苑觀光(株)를 設立, 용두산 공원에 부산타워를 건립, 부산시에 기증하고 태종대에 공원을 개발했다. '75년 商号를 株式會社 眞露로 변경하는 한편, 경영진의 세대 교체를 단행, 회장에 취임했다. 고인의 유해는 동두천시 하봉암동 선산에 안장되었다.

— (株) 眞露 소주 6호라인 가동식 —

(주) 진로 (대표이사: 張澤龍)는 4월 1일 이천주류종합단지에서 소주 6호라인 가동식을 가졌다. 6호라인이 가동됨에 따라 소주 생산 능력은 종전 1일 200만본에서 250만본으로 늘어났다. 각 라인은 1분에 700본의 병입이 가능한 시설로 증류주 계통에서는 세계 최대의 규모이다.

이날 진로는 일기관계로 미루어진 노동절 기념 체육대회와 우리 고유민속 놀이로 하루를 보내며, 노사간에 한마음으로 뭉쳐 '85년도에는 물자를 절약하고 생산성을 높힐것을 다짐했다.

(株) 韓 壹

- ◆ 퇴직
 - 김상훈 관리부장('85. 3. 21日字)
 - 고선중 영업과장('85. 3. 21日字)

(株) 韓 新

— 會員加入 —



◀ 金容海 代表理事

(株) 韓新(代表理事 金容海)이 '85. 4. 16 본회會員에 加入하였다.

따라서 本會傘下 酒精會員社는 總 13個社(14個工場)으로 늘어났다.

(株) 韓新의 任·職員名單 및 組織機構는 다음과 같다.

◇ 任員名單 및 略歷 ◇

● 常勤任員

職位	姓名	略歷
代表理事	金容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부산 수산대졸 • 대구지방국세청장 • 부산지방국세청장 • 대한주정관매(주) 대표이사
專務理事	具正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남대학교환경대학원수료 • 수경사군수회장
監事	鄭至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대학교경영대학원수료 • 부산진 세무서장 • 충무세무서장

● 非常勤任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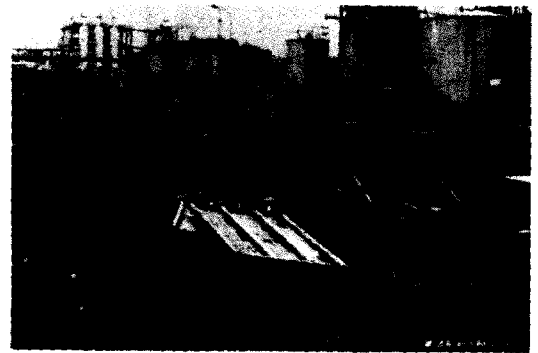
職位	姓名	略歷
理事	李奎鎬	豊国酒精工業(株) 代表理事(現)
理事	魚保泳	世王金屬工業(株) 代表理事(現)
理事	朴昌訓	瑞湖酒精工業(株) 代表理事(現)
監事	崔圭燮	(株) 舞鶴酒精 代表理事(現)

◆ 幹部職員名單

職 位	姓 名	備 考
관 리 부 장	李 東 城	事 務 職
기 획 과 장	呂 運 煥	"
업 무 과 장	金 林 彦	"
경 리 과 장	張 永 哲	"
서울사무소장(과장)	李 元 鎬	"
공 장 장(부장)	金 信 寬	技 術 職
개 발 부 장	李 洛 中	"
기 술 안 전 과 장	盧 建 源	"
생 산 과 장	黃 永 暢	"
공 무 과 장	尹 七 榮	"
시 험 연 구 실 과 장	安 振 榮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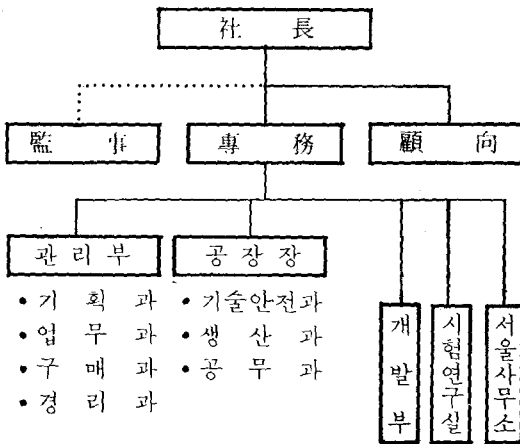


〈조주정 정제공장 기공식 장면〉



〈기초공사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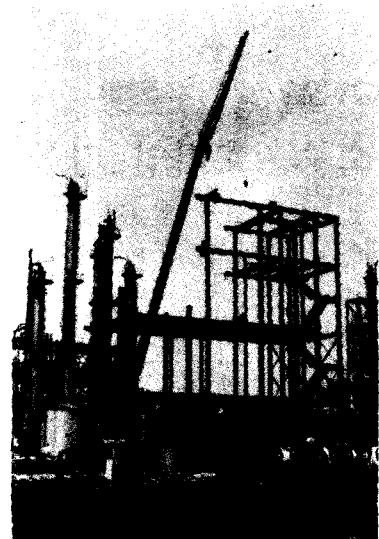
◆ 機構表



— 粗酒精 精製工場 起工式 —

(株) 韓新은 지난 85. 3. 13 全任·職員이 參席한 가운데 粗酒精 精製工場 起工式을 가졌다.

따라서 (株) 韓新은 '85. 6 月末까지 日生産能力 550D/M규모의 粗酒精 精製工場을 完工하여 7 月 1 日부터는 酒精生産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물골조공사장면〉